

우리 역사 속의 활기찬 축제

오래 전부터 수녀들은 이곳 안네타 수녀원에서 벌어지는 매우 특별한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바로 우리 수녀회 역사에 대한 전시관의 개관 행사입니다. 이 전시관은 자문의 도움과 문서고가 사빈 하이즈씨, 디자이너 스테판 쿠브 씨의 도움을 받은 여러 수녀들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 그룹이 8월 24일 이전에 도착하였습니다. 목요일에 영국에서 3명의 수녀들이, 금요일에는 로마에서 총장 메리 크리스틴 수녀와 미국, 브라질, 한국 총참사 3명과 총비서를 포함한 5명이 왔습니다. 독일 총참사 수녀는 이미 이곳에 오래 전부터



머물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네덜란드에서 몇 명이 왔고, 벨기에 나뮈르 노틀담 수녀회에서 4명이, 네덜란드 아메스포르트 노틀담 수녀회에서 4명이 왔습니다. 이 두 수녀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 홈페이지 아래 ‘역사’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일 관구에서도 아주 많은 수녀들이

이 초대에 응했습니다. 커피를 즐기는 시간이 되자 수녀들은 카페테리아와 중정에 모였는데 이런 경우에 흔히 그렇듯이 서로서로 다시 만나보는 기쁨이 너무 커서 그때의 소음 수준은 상당히 높이까지 치솟았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는 뮌스터의 펠릭스 겐 주교와 켈레베 수도원장 라우렌시우스 신부, 코스펠드 성 람베르티 성당 아른츠 주임 신부가 집전하는 미사가 있었습니다.

이 경축 미사 중에 코스펠드 “샌드위치 성가대”는 어떨 때는 독주로, 때로는 공동체와 함께 성가를 불렀고 미사곡과 가사가 담긴 책자도 전원을 위해 비치되었습니다.



책자 표지에는 A. 펠게의 그림이 실려있었습니다. (“생명의 이미지.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 하느님 무한하심을 담고 있다. 우리는 그분의 이미지이다.”) 미사를 시작하면서 겐 주교는 “마침내 안네타 수녀원에 온” 기쁨을 표현하면서 “나의 마음



속에는 노틀담 수녀회가 오래 동안 투신해 온 놀라운 일들에 연관된 많은 수녀들과의 만남이 살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1 독서(신명기 26,1-11)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봉독되었습니다. 첫째 부분은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모든 수확의 만물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아...”였습니다. 우리 영적 어머니 줄리 비야르는 병고, 박해, 추방, 모략의 순간 중에도 하느님의 좋으심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을 인도했습니다. 이 믿음은 성녀가 우리의 손에 유산으로 남긴 첫 번째 은사입니다. 코스펠드 창설자 수녀님들에게서 받은 첫 번째 은사는 신앙으로 촉구되어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과 성인들을 조건 없이 돕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직면할 수 있도록 (코스펠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며 용기와 힘을 얻을 기꺼움입니다. 이 해설 이후 독서는 계속되고 그날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전례로 집전된 미사의 복음을 참조하면서 겐 주교는 강론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수녀님들께서 오늘 개관하실 전시관, 영원히 이어질 이 전시관은, 이 모든 선함이 나자렛 사람에게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진과 글을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가 밝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선은 나자렛 사람 예수에게서 왔습니다. [...] 나자렛 예수에게서 받은 유산으로써 우리 눈앞에 세운 것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우리의 영원한 삶의 도성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강론과 특별 신자들의 기도 이후 경축 분위기의 성가와 함께 성찬례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음과 같은 “줄리 비야르의 말씀에 따른” 성가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시며 우리를 당신 땅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미합시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서는 좋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우리 주님께서서는 좋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겐 주교와 라우렌시우스 신부와 수녀들 몇이 축성을 위해 전시관으로 향했습니다. 대부분의 수녀들은 성당에 남아 아른츠 신부가 십자가 조각으로 해주는



강복을 받는 기회를 누렸는데 아른츠 신부가 수녀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준 일은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수수께끼의 해답은 전원이 가슴에 달았던 이름표에 있지요.)

전시관의 축성식에서는 신명기의 짧은 독서가 있었습니다. “예전 일을 기억하라; 오랜 과거의 세대를 떠올려 보라.. [...]주님만이 야곱을 이끄셨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전시관의 감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체험을 떠올려 보면 힘과 용기와 자신감과 더불어 오늘과 내일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갖게 됩니다. 전시관은 “영성 센터”의 필수적인 부분이고 총회 결정 사항의 결과물이며 전 세계의 노틀담 수녀들이 창설지역인 코스펠드에서 수녀회의 영성을 보다 심도 있게 알게 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녀들은

유럽,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필리핀, 파푸아 뉴기니, 미국, 브라질, 모잠비크,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 그 밖에 또 다른 나라들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작은 그룹의 수녀들이 코스펠드에 와서 3 주간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시간 동안 그들은 명확한 방법으로 수녀회의 뿌리를 알게 되고 몇 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디자인된 공간에서, 전시회는 문서들을 이용하여 1850년 독일 역사의 맥락 안에서 코스펠드 창설 시기부터 수녀회의 발전과정을 보여줍니다.



오후에 있었던 연설에서 메리 크리스틴 수녀는 이 전시관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유산 전시관은 우리 수녀님들이 사도직에서 카리스마의 은사를 살아가는 동안 수녀님들을 통해 이 세상에서 계속되는 하느님의 사업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난과 자원의 부족으로 고통 받는 세상의 여러 지역에서 사도직을 하는 도전에서 오는 십자가, 망명과 전쟁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시간을 통해 사목적인 신비를 살아가는 동안 존재했던 하느님의 좋으심과 섭리적인 돌보심을 증거합니다. [...] 164년 전 힐리곤데와 엘리사벳처럼 이제는 독일에 계신 수녀님들이 수녀회의 심장이 되어 전 세계에서 오는 수녀님들을 환영하며 문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초창기 수녀님들의 발자취를 되짚어 감으로써 스스로의 소명과 하느님 체험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려 애쓰며 지구 저편에서 이곳으로 여행해 오는 수녀들의 영적



성장을 보살펴 주는 것 - 이는 참으로 심오한 사명입니다.”

총장 수녀의 연설 이후, 모든 초대 손님들은 큰 식당이나 카페테리아, 혹은 중정에서 다양한 케익을 즐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서서히 네덜란드 수녀님들, 벨기에 수녀님들, 독일 수녀님들이 차례로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날의 행사는 성경 구절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성경의 문맥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루카 15,24b)

사진: 도로시 베르네만

기사: M. 막달린 로셀링 수녀